

‘지성의 거목’이 남긴 20세기 발자취

세기말 정리작업 잇따라... 사회 전반의 다각적 분석 필요

역사가 이의없이 진보와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굳게 믿었던 근대에는 아무도 20세기가 이토록 혼란스러우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전쟁과 혁명의 시기이자 과학과 기술의 세기, 새로운 예술의 발흥기였던 20세기가 불과 4년 남았다. 세기말이라는 분위기와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감이 불안스레 교차하고 있는 요즘, 혼돈의 시기를 열정으로 관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권 출간되었다.

굵직한 족적 남긴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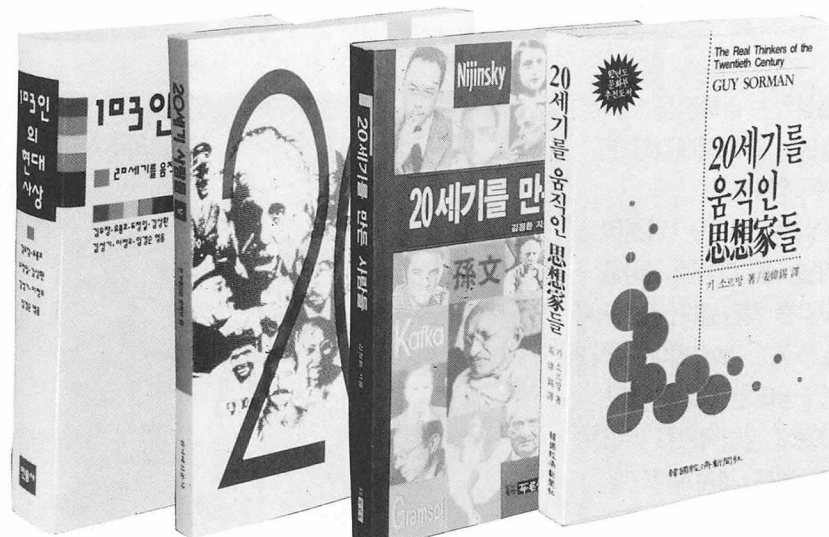
《20세기를 움직인 사상가들》(기 소르망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20세기를 만든 사람들》(김정환 지음, 푸른숲), 《20세기 사람들》(전2권, 한겨레신문사)를 비롯, 가장 최근에 출판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펴낸 《103인의 현대 사상》(김우창 외 지음, 민음사) 등이 20세기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

이들 책은 모두 20세기에 여러 분야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저자 개인의 주관성이 많이 드러난 책과 선정한 인물의 저작이나 주변상황을 부각시킴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책으로 대별된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기 소르망이 쓴 《...사상가들》은 88년 책의 저술 당시 살아 있었던 석학들과의 회견기이자 대담기이다. 저자는 “그 사람 이후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인 ‘진짜 사상가(real thinker)’ 가운데 경제학·생물학·물리학·종교학·문학·미술·인류학·철학 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을 쌓은 29명을 소개했다.

구성에 있어서도 상반되는 이론이나 가설을 가진 학자들을 한 제목 안에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20세기 사상의 논점을 확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21세기에 전개될 지적 흐름에 이정표를 마련해 두고 있다. 20세기 지성사를 지배한 결정론과 확률론, 질서와 혼돈, 우연성과 필연성 사이의 끊임없는 논쟁은 물리학에서의 르네 톰과 일리아 프리고진, 생물학에서의 스티븐 J. 굴드와 에드워드 윌슨, 인류학에서의 레비스트로스와 춤스키의 대결 등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설가이자 시인·



저물어가는 20세기를 ‘인물’로 정리한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전쟁과 혁명의 시기이자 과학과 기술의 세기, 새로운 예술의 발흥기였던 20세기를 정리하는 작업이 활발하다. 20세기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과 지적 흐름을 소개하고 있는 이들 책은 지난 세기의 정신적 자산을 점검함과 동시에 21세기를 전망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비평가인 김정환씨의 책은 저자의 역사관을 채점기준으로 한 역대 사상가들의 성적표다. 저자는 세계사에 미친 영향력 정도에 따라 예술, 사상, 경제, 과학 등 각 분야의 인물을 100위까지 선정했는데, 1위에 레닌을 올려 놓아 이채롭다. 21세기가 예술의 시대가 되리라고 전망하며 “정치·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저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20세기가 레닌으로 대표되는 정치·이데올로기의 시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저작은 개인의 주관성이 반영돼 있는 만큼 여러가지 한계를 지닌다. 가장 큰 지적은 개인이 선정한 인물이 과연 20세기 전체를 대표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문제제기다. 하지만 한편으로 개인의 시각이 지닌 매력도 찾아볼 수 있다.

두 책의 색깔은 분명히 다르다. 기 소르

망의 책이 선정한 인물들이 대개 무게있는 ‘사상가’라면 김정환의 책은 니진스키나 찰리 채플린, 엘비스 프레슬리 등의 ‘대중스타’까지 포괄하고 있다. 저자의 관점이나 세계관에 따라 이처럼 다채로운 20세기 인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은 개인 저작의 묘미다. 특히 《...사람들》을 출간한 푸른숲은 20세기 정리작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8월부터 21세기의 ‘지구와 인류’ 사이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를 거시적으로 다룬 ‘21세기 문제군 시리즈’(이와나미서점)를 출간할 예정이다.

시대적 특수성 살려

탄력적인 인물선정이 장점으로 꼽히기는 단언 한겨레신문사의 《20세기 사람들》(전2권)이다. 이 책은 한겨레신문의 문화부 기자들이 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으로 20세기에 활동한 100인의 인물을 담았다. 이 책에서는 각 인물의 사상가로서의 면모보다 개인의 삶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인물의 영향력이 그가 살았던 시기의 특수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다. 20세기의 시대적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한 까닭에 근엄한 사상가의 선집에서라면 결코 찾아볼 수 없을 《플레이 보이》의 창간자 휴 헤프너나 섹시 스타 마릴린 먼로 등도 들어 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103인의 현대사상》은 ‘20세기를 움직인 사상의 모험가들’을 찾아 떠난다. 이 책은 우선 국내의 젊은 학자들의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0세기의 지성의 지형도를 제대로 그려

보겠다는 야심의 반영인데, 철학·인류학·경제학·과학사·기호학·문학·물리학·생물학·수학·언어학·영화·역사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103인을 꼽았다.

해석학의 기초를 놓은 가다머를 비롯, 인간과 역사문제를 성찰한 주요 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의 주요개념을 간략하게 서술한 이 책은 가나다순의 인물소개와 한국어판 저작 목록의 충실한 소개로 지성사전의 성격을 드러낸다. 특이한 점은 이 방대한 지성사전에 우리나라 인물이 4명 올라 있다는 사실이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심리철학자 김재권, 정치학 이론가 정화열, 시인이자 생명운동가 김지하씨가 그들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물선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서술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견지하려 노력한 점은 《20세기 사람들》과 《103인의...》에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한정된 페이지에 적지 않은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백과사전 정도의 깊이밖에 갖지 못한 점은 학자나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아쉬움이다.

다각적 접근이 필요

결출한 인물들로 20세기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지난 세기의 정신적 자산을 점검하면서 21세기를 전망해보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또한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종말론과 주관적 예언, 역사적 허무의식을 넘어서 미래를 대비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만이 확실하다’는 20세기를 정리하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출판사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한 사상가를 깊이있게 접근해 여러 권으로 분산 출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푸른숲의 편집장 한예원씨는 인물뿐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20세기를 도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보과학의 탄생, 사회주의의 실험, 제3세계의 등장으로 요약되는 20세기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전망을 찾으려는 노력은 국내 연구자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